

김오진 1차관, 경기 안성 공사장 붕괴사고 현장 방문

- 추가 사고·인명 피해 최소화 위해 철저한 수습 당부 -

-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8월 9일(수) 2명의 매몰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성 붕괴사고 현장을 긴급 방문하여, 추가사고와 인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고수습을 지시하였다.

- 김 차관은 “우선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, 오늘과 같은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”이라면서,
 - “현장에 계신 분들은 복구과정에서 안전에 유의해 최선의 수습을 해주실 것”을 당부하였다.

- 김 차관은 “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고 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고,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 조치 하겠다”면서,
 - 특히, “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은 외국에서 오신 근로자로,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포함해 건설현장 생태계에 안전 사각지대가 있는 지도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- 또한, 김 차관은 “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 안전 보장이고, 이를 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만족하실 수 있는 건설안전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, 특히, 건설안전 문화 인식에 대한 변화가 시급하다”며,
 - “이와 같은 내용도 10월에 발표될 건설안전 제고 방안 등에 포함하여 적극 검토할 것”을 지시하였다.

2023. 8. 9.

국토교통부 대변인